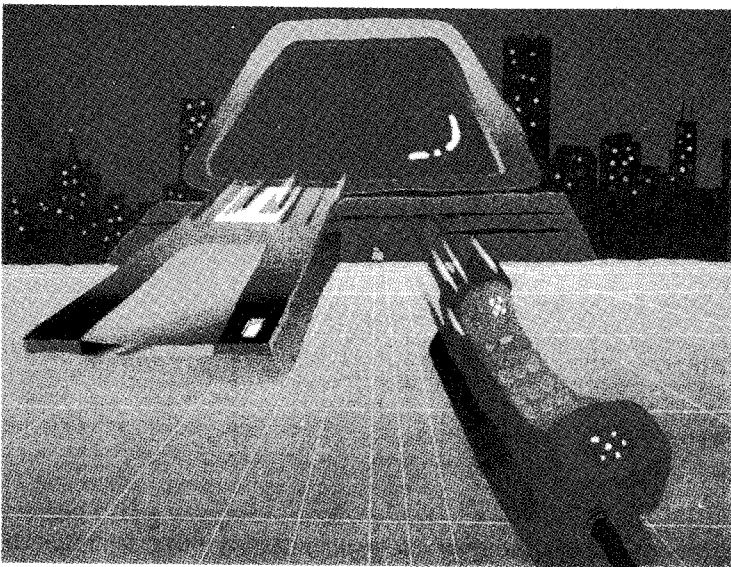


진화된 전화시스템이 세상을 바꾼다



한이 없는 욕망들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문명의 이기들로 꽉 차 있다. 예컨대 단추 하나로 뜬이 잘 들고 맛있는 밥을 지어주는 전기밥솥, 다이알을 돌리고 단추만 눌러주면 산더미같은 빨래를 척척해주는 전자동식 세탁기, 단 2~3분 안에 한 사람의 국이나 찌개를 펄펄 끓게 해주는 전자렌지, 무더운 여름철에도 차디찬 얼음을

얼려주는 냉장고와 시베리아의 냉기를 뿜어주는 에어컨디셔너…… 등등등.

그러나 그중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의 눈과 귀 또는 입이 되어주는 갖가지 매체들의 역할은 한층 더 돋보인다. 예컨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틀어 국내 또는 세계 여러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TV화면을 통해 볼 수가 있고, 그것도 모자라 통근버스 또는 자가용차의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또 조간신문을 펴들기도 한다.



김 정 흠 교수
고려대학교

또 커다란 사건이라도 일어나면 그 자초지종을 주간지나 월간 잡지를 통해 상세히 알아본다. 그래도 모를 것이 있으면 PC통신을 이용하거나 관계당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다.

또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며, 언제나 전축을 틀거나 CD플레이어(Compact Disk Player, CDP라고도 함, 신중의 전축)를 틀고, 보고싶은 영화가 있으면, 동네에 있는 비디오가게에 들려, 비디오 테이프(Video Tape)를 빌려와 VTR(Video Tape Recorder, 엄격히는 VCR 즉 Video Cassette Tape Recorder)에 건다.

15년전이나 20년전처럼 컬러 TV도 없었고, 전축도 흔하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VTR이나 CDP가 있었을 리 없었던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사람의 욕망에는 한계가 없다. 그렇게도 부럽던 컬러 TV나 전화를 드디어 설치하고 나면 만족은 커녕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은 TV, 더 편리한 전화기는 없는가 하고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참을성 없는 신세대들

예컨대 바라고 바라던 전화를 드디어 우리집에도 설치하게 되면 감지덕지 그저 고마워만 하는 구 세대와는 달리 요새의 젊은이들은 불평만 늘어놓는다. 예컨대

이놈의 전화는 왜 회화 상대방의 얼굴표정은 보여줄 수가 없고 말소리만 들려주는가 말이다. 또 왜 전화기에는 꼭 그 귀찮은 줄(전화줄)이 붙어다녀야 만 할까? 왜 이놈의 전화기는 일대일 전화만 가능하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다자간 통화는 할수가 없을까?

또 라디오건 TV이건 방송은 왜 일방향적(방송국에서 시청자를 향해서만)으로만 전파를 보내오며, 신문의 사진은 꿀먹은 벙어리모양 도대체 미소를 띄울 줄도 모르고 말을 걸어오는등 움직일 줄을 모를까? 또 잡지에 실린 신인가수들의 사진은 미소를 띄우기는 커녕 진작 노래조차도 부를줄도 모르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할까? 그리고 도대체 그 놈의 TV화면은 왜 평면으로만 보일뿐 입체적으로는 보이지가 않을까?

사실 꼼꼼히 생각해본다면 이런 의문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누구나 한번쯤은 가져볼만한 의문이었을 것이다. 다만 지난날의 더딘 과학기술의 발전 템포로는 이런 생각자체가 어렵도 없는 공상같아서 아무나 감히 큰소리도 불만을 터뜨리지 못했을 뿐이다.

5년에 10배씩 느는 전자기술에 힘입어 터무니 없던 꿈들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전자기술의 엄청난 발전속도에 의해 이런 꿈들이 하나 하나 실현되어 가고 있다.

예컨대 미국서는 3년전부터 AT&T사가 액정표시판이 달린 컬러 TV 전화기인 <비디오폰 2500>을 단돈 1000불로 팔고 있다. 보통의 전화줄에 꽂기만 하면 매초 10화면씩의 총천연색 칼라 동화를 보낼 수가 있다. 물론 통화요금도 일반의 전화요금과 하나도 다를바 없다. 다만 보통의 전화회선을 쓰는 관계로 초당 화면이 10개씩 바뀌는 까닭에 꼭 1920년대의 영화모양 화면의 움직임이 약간 어색한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그래도 전화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요 또 즐거움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NTT사가 ISDN(종합 정보통신망,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우리 나라에서도 작년 부터 서울을 위시로 5대 도시에서 시범실험을 하고 있다)을 써서 5인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칼라전화회의시스템을 185만엔으로 팔고 있다. 최대 5인이 동시에 화상회의가 가능한 까닭에 최소 4명이 필요한 마작모임을 소집하는데 안성마춤이란다.

줄없는 전화 : 누구나 들고 다니는 휴대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미국서는 200만회선 돌파) 휴대폰은 매년 가속도적으로 그 가입자수가 늘고 있다. 와이셔츠 가슴포켓에 살짝 넣고 다닐 수 있는 소

형 경량의 것이 나와 중소기업의 경영자, 회사간부등이 사무연락으로 쓸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패션으로서 악세서리화까지 되어 가고 있다. 길가다가도 수화기를 포켓에서 끄집어내서 귀에 대고 전화하고 있는 모습이 멋있고 근사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 뿐이라, 이 휴대폰(handy phone)을 더욱더 보급시키기 위해 세계의 내노라하는 통신관계 회사들이 모여 통신위성을 이용한 범세계 휴대폰시스템을 현재 구축중에 있다. 예컨대 이리듐(Iridium)계획이라 불리는 계획(미국 모토롤러사가 중심이 되어 있음)에서는 66개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써서 세계 어디서나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서거나 세계의 누구라도 포켓에 넣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불러내서 전화회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3년후인 1998년에는 완성될 이 계획이 시작되면 세계사람들은 마치 이웃에 있는 사람을 창너머 불러내서 서로 얘기하듯이 멀리 지구의 반대쪽에 사는 벗들은 휴대폰으로 불러내서 서로 즐거운 회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계획이 매력적인 것은 지금의 국제전화요금 보다도 훨씬 싼 값으로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마셜 맥루한이 말한 지구촌이란 개념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둘레 4만km나 되는 지구가 둘레 400 m 도 채 되지 않는 조



그마한 마을과도 같아진다는 것이다. 사실 400m되는 직경 130m의 원시촌락에서 초속 340m로 달리는 음파가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으로 가는데는 1/3초가 걸리지만, 둘레가 4만km인 지구를 초속 30만km의 전파가 한바퀴 도는데는 1/7초밖에 안 걸린다. 그런 점에서 둘레 4만km의 지금의 지구촌은 둘레 400m(직경 130m)의 원시촌락보다도 오히려 더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지구촌이란 바로 그런 뜻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지구촌이 지금 바야흐로 실현화가 된다는 것이다.

공상과학영화의 내용이 실현되려 하고 있다

이리듐계획에 의한 이 범지구적 전화시스템은 당장은 음성전화형태로 나타나겠지만, 머지 않아 이 휴대폰은 음성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동화상마저도 보여주는 컬러화상전화로 탈바꿈한 것이 틀림없다.

그 뿐이라, 과학자들은 이런 휴대폰은 전화기능외에 PC(개인컴퓨터)기능과 TV기능까지도 갖게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길가다가도 생각이 나면 회사나 연구소내에 있는 대형컴퓨터나 데이터베이스(Data Base, 일종의 정보축적은행)를 불러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게 되고, 또 필요하다면 팩시밀리(facsimile, 모사 전송장치, 일종의 전자우편기 또는 원격복사기) 기능을 써서 서류나 문서를 보낼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게 될 것 같다.

그 결과 재택근무도 자연스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 같다. 물론 회의를 위해 정해진 요일의 정해진 시간범위인 핵심시간대(Core time)에 만든 회사에 출근해야 하겠지만, 출퇴근은 훨씬 자유로워지는 플렉스타임(flex time)제도도 어느새도 모르게 정착될 듯하다.

얼마남지 않은 21세기초에 세계는 그렇게 바뀔 것이 틀림없다.